

4

2003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레위기 · 요한복음 · 민수기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레위기 · 요한복음 · 민수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4월의 부활(復活)

“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함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고전 15:42~44)

성경은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육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명합니다.
인간은 썩어질 존재이고,
욕된 존재이며,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우리의 몸은 그 본질이 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매우 정확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모하며,
강하여 저서
마침내 신령한 몸이 되고자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원과 영광과 강함과 신령함을 꿈꾸는 인간의 추구는
언제나 헛된 시도이고 애씀이었을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을 이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몸과 천한 몸, 약한 몸과 진흙인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은 오직 믿음의 주시요 그의 부활일 뿐입니다.
그와 연합하는 자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를 통하여 흘러들어가,
마침내 때가 이르면 썩이 나뉘듯, 우리의 몸이 홀연히
그렇게 뒤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고전 15:5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2003년 4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요한복음 서론

본 서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수제자 중의 하나였던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 물론 요한이 저자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본 서의 모든 말씀과 사건을 볼 때 12제자 중의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요 21:20-24절에 의하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본 서의 내용의 기록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축소되는데, 그 중에 요한이 가장 확실한 저자로 인정된다. 물론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문헌에 의하면 요한이 본 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본 서의 기록 연대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공관복음서가 모두 완성된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의 최하한선으로 A.D. 70년으로 보고 있으며 최대 한계선은 요한이 밧모섬으로 귀향 가기 전인 A.D. 96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요한의 행적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기록연대는 A.D. 85-90년 경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본 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①그 당시 교회의 신학적인 기반을 위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했던 '가현설'과 신비한 지식을 소유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영지주의'를 공박하기 위해서였다. ②또 요한은 공관복음서를 보완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본 서를 집필했다. ③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즉 헬라화 된 술어로 재 서술하기 위해 본 서를 기록했다. ④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드러난 유대교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저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요한은 당시 헬라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본 서에 나타난 신학적인 주제 및 중심 사상은 '믿음'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1:7)라; 말로 시작하고 끝맺고 있기 때문이다(20:31). 또한 본 서에 98번이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즉시 영생을 얻지만 그를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에 놓이게 됨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또한 본 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말씀의 성육신(1:14), 본 서의 기록 목적(20:31), 혹은 예수의 자기 선언('나는...이다')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요한은 구원을 '영원한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생명의 근원이자 자존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며 영원히 막 마르지 않는 영적 충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본 서에는 '속죄'가 그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으며 (1:29), 예수님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14,15)라고 예고한 바가 있다. 물론 속죄의 교리가 바울 서신처럼 분명하게 설명되지는 않으나, 본 서에서는 나름대로 함축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서에는 인간 예수의 모습도 나타나지만(4:6; 12:27) 무엇보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이 부각되어 있다.

내용분해

제1부 :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1:1-8

1. 그리스도의 신성/1:1-2
2. 그리스도의 선재/1:3-5
3.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1:6-8
4. 그리스도의 배척/1:9-11
5. 그리스도를 영접/1:12-13
6. 그리스도의 성육신/1:14-18

제2부 : 하나님 아들의 출현/1:19-4:54

1. 세례 요한에 의하여/1:19-34
2. 요한의 제자들에게/1:35-51
3. 가나의 혼인잔치에서/2:1-12
4. 유대에서/2:13-3:36
5. 사마리아에서/4:1-42
6. 갈릴리에서/4:43-54

제3부 : 하나님 아들의 배척/5:1-12:50

1. 명절에 예루살렘에서/5:1-47
2. 유월절에 갈릴리에서/6:1-71
3.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7:1-10:21
4.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10:22-42
5. 베다니에서/11:1-12:11
6. 예루살렘에서/12:12-50

제4부 : 하나님 아들의 교훈/13:1-17:26

1. 다락방에서 교훈/13:1-14:31
2. 동산으로 가는 중에 교훈/15:1-17

제5부 :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부활/ 18:1-21:25

1. 배반당하심/18:1-19:16
2. 십자가에 못 박하심/19:17-37
3. 장사되심/19:38-42
4. 부활/20:1-10
5. 나타나심/20:11-21:25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성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11-16절)과 먹을 수 없는 사람(1-10절)이 구별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동물(17-21절)과 바쳐질 수 없는 동물(22-25절)로 구별됩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도 유출병이나 문둥병 등에 걸린 사람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일시 고용된 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물은 하나님께 속하며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이나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산 성도들, 그리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늘의 권리를 누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물은 흠이 없어야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보다 통회하는 심정과 헌신된 마음을 원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규정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참된 마음가짐과 자세를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흠없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1-3절). 그것은 6일간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평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민간력과 종교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민간력으로는 7월이며, 이때 밀과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지고, 7주 후에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민간력으로 새해가 되는 1월 1일(종교력으로 7월 1일)에는 나팔절, 그리고 10일 후 7월 10일에는 속죄일로 지키고,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을 짓고 그 곳에 거하는 초막절(장막절)을 지킵니다. 각지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드리는 유월절(무교절), 칠칠절(오순절), 초막절(장막절)을 삼대절기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비롯하여 이 모든 절기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축제가 아니라 “여호와와의 절기”(2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막 2:28)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골 2:16~17 참조).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성막에 비치되는 등잔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1-9절) 여호와와 이름의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과(10-16절) 살인죄 및 상해죄에 대한 배상법들(17-23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하시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경우 손해나 상해를 입힌 대로 갚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형벌이지만 언약 공동체의 평안과 질서를 생각하면 형벌을 최소한으로 끝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등불을 관리하는 자세와 진설병을 준비하는 과정은 형벌 규례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등불과 진설병이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정성 드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적극적인 규례라면 형벌에 대한 규례는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성막에 켜져 있는 등잔의 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삶을 일깨워주고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등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세상의 빛”(요 9:5)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죄와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면 이 세상의 죄악 속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에게도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즉, 6년간은 파종하고 제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1-7절).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일곱 안식년 곧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회년을 선포하도록 하여 땅과 사람 모두에게 쉼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안식년과 회년에 대한 규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사람과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년이 되면 사고팔았던 토지와 가옥들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다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토지를 본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막고, 종들에게도 토지와 가옥과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노예제도를 방지하여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 충분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도록 하는 것이 회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년 법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의 '은혜의 해' (회년)를 전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4:19). 우리가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년. 곧 안식과 회복과 자유가 있는 기쁨의 그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날개 아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따릅니다. 본장에서 언급하는 축복에 대한 약속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이방인의 침략도 막아주시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십니다(1-13절). 그러나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질병과 기근을 주십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여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들짐승들을 보내 가축을 멸한다고 하십니다. 땅은 황무하게 되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14-39절). 그러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형벌을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을 반성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시고 또 다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40-46절).

성경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곁길로 나간 인간들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눅 15:11-32)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하면서 레위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이웃과 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일단 약속한 것은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인간사회에서 약속을 어기면 사람들에게 불신 받고 때로는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서원' 이라고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변개하여 바꾸지 못합니다(10절). 부득이 바꾸어야 할 경우 그 값의 5분의 1을 배상해야 합니다(13절). 서원은 사람과 생축으로 할 수도 있고(1-13절), 가옥과 토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피하고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게 헌신해야 합니다(고후 9:7). 그러나 초태생과 십일조는 하나님께 서원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헌신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롬 12:1).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말씀하시던 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그리고 참 빛이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이 요한 복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은 창조(1절)와 역사 가운데서 공활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참 빛이 있었습니다(9절). 그러나 어둠에 속해 있던 이 땅의 사람들은 주인 되신 이가 오셨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11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 먼저 온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29절) 부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신 주님이 “와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다나엘에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51절).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매 순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깨드리며 부복하는 신령한 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가나안에서 행하신 표적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요 10:10).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룰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 주십니다.

유대인의 결례의식을 통하여서 준비된 물 항아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귀중한 표적의 도구로 사용됩니다(6절). 혼인 잔치에 부족한 포도주로 인하여 잠시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엄청난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하인에게 주님은 말하십니다. “물을 채우라”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9,10절). 동시에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청결케 하시는 의식을 행하시며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암시하면서 가르치십니다(21절). 본 장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24,25절).

늘 주 안에 거하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들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뜨리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에덴에서의 풍요로움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매 순간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믿음과 결단은 늘 주 안에서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자신을 늘 낮출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써 많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이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비로소 이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은밀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2절). 그가 당당하게 찾아오지 못한 이유는 그의 사회적 배경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3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광야의 뱀 같이 들려야 할 것이며 이것을 믿는 이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아주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15절). 또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과 영생의 법을 선포하십니다(16-21절). 세례요한은 주님을 신랑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사역을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덧붙여 그는 그 아들에게 영생이 있음과 순종함으로 그 영생을 받으라고 선언합니다(36절).

빛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려면 거듭남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전부라는 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짐의 은혜를 통하여 진정 거듭나셔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아래 깨어짐으로 주의 은총을 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바로 생명의 현장이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은 본 장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말합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미래에 있을 복음의 범위를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자신이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14절).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 여인은 모든 이들에게 '와 보라' 고 전도를 합니다(29절).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33절).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십니다(34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하십니다(38절). 뒤이어 나오는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46-54절).

먼저 우리는 주님을 전하여야 합니다. 모든 곳에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에 주님의 관심과 마음이 담겨어 있습니다. 이 옷에게, 그리고 모든 이방민족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이 그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독려하시고 원하십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생명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죄악의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분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님은 38년 동안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6절).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5:6절). 소망이 전혀 없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동시에 주님은 이러한 주의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이라(17절)고 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놓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척을 당하시기 시작합니다(10,18,45절).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시면서 나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언하십니다(24절). 더 나아가 요한의 증거와(33절) 성경 속에서 자신을 증거하고(39절)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 너희가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고 그들의 조상 모세와 연결시켜 자신을 주장하십니다(46,47절).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범사에 인정하십니까? 이 성경이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늘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셔야 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하소서 ② 찬양 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의 초대였으며 생명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진실하고 진지한 영생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을 찢으시면서 자신을 나누어 주신 주님에게로 온전하게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에게로 나왔습니다(1,2절). 이 무리 가운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9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남은 것이 열 두 바구니가 되었습니다(13절).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할 것이라' (35,48,51절)고 선언하십니다. 동시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며 주님에게로 초청을 하십니다(56,58절). 주님의 이 난해한 말씀은 오직 영으로만(63절) 이해할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접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41,52,60,66절). 그것은 그들은 여전히 육적이었고 이 세상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온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자신의 자아를 찢으므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내가 가진 옛 사람을 온전히 버리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 주님을 불신하는 가운데(1-13절) 예수님께서서는 모세 율법의 증거를 예로 들어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14-24절).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배척과 음모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임을 증거하시며(25-36절), 아울러 생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37-44절).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배척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구속의 때가 덜 찼을 때에 필요 없는 핍박을 자초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1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 생각과 사상을 혼합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합니다(16-18절).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나타난 인간 심령의 갈급함으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친 것처럼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줄 단비는 생수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37절)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메마른 심령이 채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줄 단비는 예수님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이 가속화될수록 자기를 더욱 더 깊이 제시하면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있지만, 거부하는 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었던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정죄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과 단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1-11절). 예수님이 자기를 제시하시고 아버지께 대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25-28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며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포기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31,32절). 이때 비로소 성도는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죄와 사단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31-44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을 바라보는 성도는 더 이상 죄와 허물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12-2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지체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더 이상 죄와 허물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제 눈을 밝게 뜨게 하사, 빛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시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8장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린 유대인들의 영적 어두움을, 9장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에 있으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비참하고 절박한 상태를 동정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맡겨 보십시오. 그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1-12절). 예수님은 안식일에 소경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안식이 있길 원하십니까? 안식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소경의 눈에 필요한 예수님의 진흙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14절). 소경은 눈을 떴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17절). 아직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믿게 됩니다(38절). 내 주위에도 소경과 같이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11절)”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려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영적 실로암인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같이 가르침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1-6절)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선언하셨습니다(7-18절). 그러자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19-21절).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수전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시금 자신이 양의 목자임을 증거하셨고(22-30절)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근동의 목자들이 양 떼 앞에 서서 안전한 곳으로 양 떼를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들 앞에 서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절대적인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히 12:2).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부르셔서 자기 양을 만드시고(행 18:10), 인도하셨습니다(16절).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양들을 불러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므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양인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롬 8:35-39).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자기 양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28,29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은혜를 풍성히 얻게 하려고”(10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자로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죄인인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주님이시며,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3절). 이때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찾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7-10절).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슬퍼하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며 신적인 위로를 하셨습니다(19절). 성도는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27절)라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40절). 믿음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명령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엡 2:5).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 제목 / ① 주님, 오늘 나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로 오셔서 나를 위로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좃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무리 단계인 십자가 지시기 전 사건이 기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10절). 바울은 우리 몸에 축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도 채워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골 1:24).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앙의 기초는 “이 표적”(18절), 즉 십자가가 기초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기초 되지 않는 신앙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도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23절).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전에 하신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위해 고난 받는 자가 가장 큰 자요, 영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3:11,12).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26절).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고난의 현장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36절). 여기서 너희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구원의 초청을 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쉬지 말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밀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구원의 초청을 쉬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밀알들이 되게 하옵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이하 14장까지는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그 만찬의 시작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講話)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도에 관해 교훈하셨습니다(1-20절). 그러나 이처럼 감동적인 순간에도, 가롯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려는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21-30절). 하지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31-35절), 베드로의 부인(否認)을 예고하십니다(36-38절).

본 장을 통해 강조되는 교훈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겸손과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주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맡게 되고 책임자가 될 때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요?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며, 그들의 밑에 서서 본을 보임으로 좇아오게 하는 주님과 같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명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각 교구와 교육 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분문에서부터 16장까지는 소위 '다락방 강화'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특히 본문은 앞 장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떠나심과 베드로의 부인 등의 예고를 전해 들음으로 심히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부분입니다.

본 장의 주제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의 본론 중 첫 부분에 해당되는 본 장은, 결코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1-4절)과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선언(5-15절)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16-26절). 또한 하늘의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27-31절).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임박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승천에 대비하여, 제자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믿음과 구원의 도리에 대해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 자신의 육체적 모습은 더 이상 제자들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과 함께 복음 사역에 계속 헌신해야 될 제자들로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히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내용 역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 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성도들 사이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1-11절). 이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12-17절). 마지막으로 세상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십니다(18-27절).

결국 본 장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곧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핍박에 대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삶과 가르침대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정, 직장,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맺어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접붙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잠 15:13).

기도 제목 / ①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 주의 자녀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② 단 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14-16장) 가운데서 결론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무력감과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십니다(1-15절). 아울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기 위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도록 만드시며(16-24절), 담대한 신앙을 갖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25-31절).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고통과 수치에도 태연하십니다. 도리어 제자들의 안위와 믿음을 끝까지 염려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능히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사랑과 권세를 지닌 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친히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녕 우리가 시험 중에 고난 받을 때 능히 도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으십니다(히 2:18).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교회학교 교사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데 헌신하게 하소서.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흔히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은 1년 1차, 지성소에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통로로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히 9:11-12).

본 장에는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언급됩니다. 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신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는 우선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는 내용(1-5절)과, 제자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가 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6-19절),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20-26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님의 중보 기도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직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각 교육위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여 심문 받으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14-16장)를 끝낸 주님께서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사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1-14절). 이미 예고된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15-18절). 주님께서 산헤드린 법정의 심문을 받으십니다(19-27절). 결국 유대종교의 지도자들의 각본에 따라 사형 선고를 확정 짓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송된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로부터도 철저히 버림 받습니다(28-40절).

진정 예수님께서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갖은 음모와 계락을 다 사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출세를 위해 현실과 타협하기를 주저 않는 로마의 총독, 그리고 군중심리에 휩쓸려 진실과 정의를 저버린 어리석은 백성들에 의해 둘러싸이신 것입니다. 더구나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친 제자들마저 모조리 흩어져 누구도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히 동요의 빛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러 온 자들을 물리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일을 할 때 핍박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오직 주님과 같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대적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러 오신 흠 없는 유월절 속죄양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품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께서 체포되시어, 당시 유대 총독이던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정신 이상이 있는 몽상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가 와이라는 정치적 입장의 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두려워합니다(8절). 또한 마 27:19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에 대한 꿈을 꾸므로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의 일로 관여하지 말기를 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에 더욱 당황하여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은 밝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대로 장사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곧 장사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목적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역시 놀라 달려왔지만, 이유를 모른 채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후 마리아가 홀로 남아있는데 두 천사를 먼저 만나고 잠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체는 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기 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8일 후에 도마에게도 나타나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29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벧전 1:8).

기도 제목 / 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자 제자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며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6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1-14절).

같이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한 후 주님은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방법은 기도를 해주거나,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당황해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이어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지난 날의 허물을 깨물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었기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같은 부탁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늘 감격하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 중 1장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해서 2년 뒤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실시합니다(민 26장). 인구 조사의 대상은 20세 이상 된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즉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민족의 번영은 군사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의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체인구 200만명에서 군사가 될 수 있는 인구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46절). 대한민국의 인구가 4,500만 명인데 군인 수는 60여만 명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강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군대의 규모를 제정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키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좌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재정비 되어야겠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무장이 되게 하옵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다가 진을 칠 때의 배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배치했습니다. 사면으로 둘러서 성막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막을 중심으로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기도원이나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매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진 배치를 통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또 있습니다. 진 배치가 모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일대는 유다, 잇사갈, 스불론 지파로서 모두 레아의 몸에서 난 자손들이었고, 제 이대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로서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의 몸에서 난 모두 '레아' 계통의 자손이었습니다. 제 삼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서 모두 라헬의 자손들로만 구성되어졌고, 제 사대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로서 여종 빌하와 실바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가까운 형제들을 한 진영에 묶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형제의 우의를 바탕으로 단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하나됨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41절).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에 비해 레위인의 숫자가 적자 그 차이만큼 돈으로 바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전(贖錢)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차이까지 돈으로 환산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매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한 생명까지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일개월 이상 된 장자는 2만 2천 2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이들을 대신할 일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의 수효는 2만 2천명이었습니다. 양쪽의 숫자가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만드신 증거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성막의 일에 전적으로 얽매여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장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레위인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 찬송 / 30장(여호와와 하나님) • 본문 / 사 43:14~21

보통으로 ♩ = 92

못갖춘 마디 - 여리게 시작해서 강박으로 이어진다.

1.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2. 주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3.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4. 주 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힘차게 연결하여 노래한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저 하늘 나라 형하여 끝까지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다 기쁨을 성 높여서 감사드려

힘차고 분명하게.

약간 저음이지만 빈약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슴을 울려 노래한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주 얼굴 뵈올 때 내 맘이 기뻐
저 천군 천사들 주께 올 위하고
창조 주 하나님 내 주 되시니

8분음표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느껴지도록 절도있게 노래한다.

그 영원하신 영광이 높으니
거룩하신 영이 찬양하리
복히 주께 영광을 찬양하
뜻 성도나도 없으려 경배하
주 앞에 나도 없으려 경배하네 아멘

●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 일의 목적을 배운다.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 일의 목적을 배운다.

●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14절 :

② 15절 :

③ 16절~17절 :

④ 18절~20절 :

⑤ 21절 :

2. 다음주일 설교('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창조하신 이'의 단원을 읽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②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의 단원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그 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③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의 단원을 읽고, 이스라엘이 돌이켜야만 하는 죄가 무엇이었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④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이'의 단원을 읽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귀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⑤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이'의 단원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⑥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의 단원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⑦ '여러분의 하나님'의 단원을 읽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자신의 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소서.
2.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목 :

본문 :

제 2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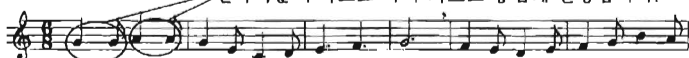
예수처럼 행하라

• 찬송 / 497장(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본문 / 요일 2:3~6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삶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평안이 있게 됩니다.

보통으로 ♩ = 92

한마디를 두박으로 하여 기쁘고 흥겹게 찬양합니다.



1. 어 디든 지 예 수 나 를 이 끌 연 어 디든 지 예 수 함 께
2. 세 상 친 구 모 두 나 를 떠 나 도 예 수 함 께 기 면 외 름
3. 어 둔 그 늘 나 를 에 위 쌀 때 에 주 가 함 께 계 심 믿 고



가 려 네 예 수 함 께 아 니 가 면 겁 없 고
없 겠 네 가 는 길 이 위 태 히 고 험 해 도
자 려 네 죽 은 후 에 천 국 에 서 깨 어 나

찬송의 선율이 하행하며 진행하지만
결코 느낌이 처져서는 안됩니다.



항 상 예 수 함 께 가 면 겁 없 네
어 디든 지 예 수 함 께 가 려 네 어 디를 가 든 지
예 수 함 께 길 이 갈 이 살 리 라



겁 날 것 없 네 어 디든 지 예 수 함 께 가 려 네

이 찬송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고 흥겨운 감정을 갖고 찬송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심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때에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인 것이지요.

●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니신 마음을 배우고 따른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본을 배우고 따른다

●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3절 :

② 4절 :

③ 5절 :

④ 6절 :

(종교개혁의 전통)

2. 다음주일 설교('예수처럼 행하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그리스도와 동행함'의 단원을 읽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 ②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단원을 읽고,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③ '기쁘시게 함'의 단원을 읽고,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④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함'의 단원을 읽고,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실제적이고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 ⑤ '하나님 나라를 향함'의 단원을 읽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길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2.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제목 :

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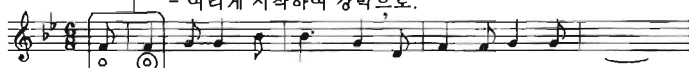
제 3 과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 찬송 / 151장(다시 사신 구세주) • 본문 / 마 28: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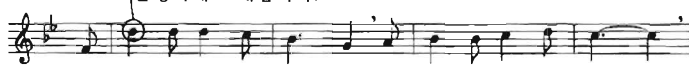
보통으로 J. = 72 •한마디를 두 박자로 하여 8분의 6박자의
느낌을 살려가며 느리지 않게 노래합니다.

•못갠 마디의 시작
-여리게 시작하여 강박으로.



1. 다 시 사 신 구 세 주 나 항 상 섬 기 네
2. 온 세 상 살 펴 보 니 주 사 랑 알 겿 네
3. 주 믿 는 성 도 들 아 다 기 뵈 노 래 로

입을 열고 배에 힘을 주어
크고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온 세 상 조 롭 해 도 주 정 념 사 셧 네
내 맘 이 아 물 때 도 주 사 랑 알 겿 네
주 예 수 우 리 왕 께 다 찬 양 드 리 세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못갠 마디의
셈여림을 잘 표현해 가며 노래합니다.



그 은 혜 로 온 손 길 부 드 러 온 음 성
이 세 상 풍 파 이 길 힘 주 시 는 주 님
이 세 상 소 망 이 요 참 천 구 되 시 는

음정 및 리듬 주의!

선율은 하행하지만, 느낌은
점차 고조되어가며 후렴의
시작을 예비하도록 합니다.



내 평 생 주 님 항 께 늘 계 시 네
마 칭 내 영 광 중 에 주 오 시 리
주 예 수 영 원 토 록 찬 양 하 세

•후렴부터는 더욱 분명하고 힘차게 노래합니다.

후렴



동실 동실 하는 느낌으로 된 8분의 6박자의
느낌을 계속적으로 잘 살려가면 노래해야 합니다.



반음계적 음정 주의!



조금씩 느려지면서.

급하지 않게 여유있는 빠르기로
노래를 마무리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확신한다.
2.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할 사명에 대해 배운다.

●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1절 :

② 2절~4절 :

③ 5절~7절 :

④ 8절~10절 :

2. 다음주일 설교('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긴급한 소식'의 단원을 읽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왜 긴급하게 전해야 하는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② '빈 무덤'의 단원을 읽고,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인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계와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③ '다시 살아나심'의 단원을 읽고, 천사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인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④ '구주이심'의 단원을 읽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 증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⑤ '제자들을 만나주실 것'의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⑥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보내심'의 단원을 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려는 각각의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소서.
2.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제목 :

본문 :

제 4 과

다윗의 고백

• 찬송 / 342장(어려운 일 당할 때) • 본문 / 시 16:8~11

*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때에,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주듯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8분의 6박자의 선율에 실려 잘 표현된 찬송입니다.

한 마디를 두박으로 하는 8분의 6박자의 리듬은 주님 품안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줍니다.

조금 느리게 ♩ = 60

음정 분명히

1. 어 려운 일 당 할 때 나 의 믿 음 적 으 나
 2. 성 령 께 서 내 믿 에 밝 히 비 취 주 시 네
 3. 밝 을 때 에 노 래 며 어 돌 때 에 기 도 와
 4. 생 명 있 을 똥 안 에 예 수 의 지 함 니 다

음정 분명히 하면서 점점 크게

의 지 하 는 내 주 를 더 욱 의 지 함 니 다
 인 도 하 심 따 라 서 주 만 의 지 함 니 다
 위 태 할 때 도 움 을 주 께 간 구 함 니 다
 천 국 올 라 가 도 득 의 지 할 것 뿐 일 세

후렴 8분의 6박자의 '동실동실'하는 느낌을 더욱 강조하여서 힘있게 찬송하여 갑니다.

세 월 지 나 갈 수 록 의 지 할 것 뿐 일 세

굳건한 의지를 담은 믿음의 고백!

아 무 일 을 만 나 도 예 수 의 지 함 니 다

●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배운다.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과 걸어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 배우고 따른다.

●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8절 :

② 9절 :

[illegible]

④ 11절 :

● 學習目標

2. 다음주일 설교(‘다윗의 고백’)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부활에 대한 예언'의 단원을 읽고, 본문에서 다윗이 예언한 부활에 대한 표현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② '언제나 앞자리에 모심'의 단원을 읽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앞자리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③ '하나님의 뜻을 따름'의 단원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따를 수 있을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④ '언제나 우편에 모심'의 단원을 읽고, 우리들의 우편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⑤ '기쁨과 평강과 찬송의 길'의 단원을 읽고, 어떻게 이러한 길을 걸을 수 있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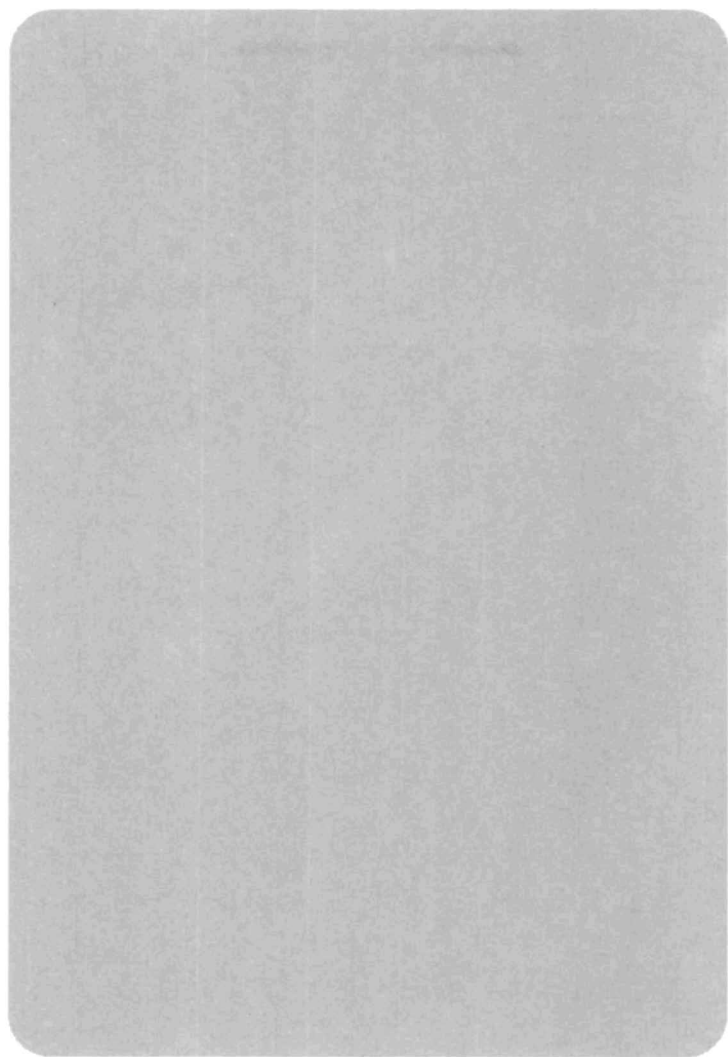
⑥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⑦ '성령에 따라 말함'의 단원을 읽고, 생각과 입술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시고,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 ⑧ '우리의 고백'의 단원을 읽고, 각자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어떠한 것들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다윗의 고백처럼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소서.
2.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소서.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토동평화평두코쌍삼

한국전쟁사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3년 4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박인기(1-6일), 위건량(7-12일), 이희식(13-18일),
최종철(19-24일), 장 훈(25-30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